

# 완전한 지불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당신의 빛

# 목 차

서론 - 사랑으로 지불함

## 1부 : 당신의 빛

1장. 저는 잘 모겠습니다

2장. 이르지 못함

3장. 손해 평가

4장. 부족한 지불

## 2부 : 하나님의 지불

5장. 대신 지불함

6장. 용서

7장. 믿고 영접함

8장. 은행에 가져감

# 서론

## 사랑으로 지불함

살면서 우리가 지불해야 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의무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맞습니다. 세금 말입니다.) 예의상 지불하는 경우도 있으며(8살 난 아이가 모금한다며 사탕을 팔러 왔는데, 어느 누가 야속하게 거절하겠습니까?) 우리의 이기적 욕구 때문에 지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고, 원하고, 사고...)

그런데 때로는 사랑때문에 지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당신이 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사기 위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반평생을 함께 보낼 약혼자를 위해서 반지를 준비할 때 그럴 것입니다. 또는 어머니나 자녀를 위해 사는 선물을 준비할 때, 그럴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의 마음으로 준비하는 선물에는 희생과 감정이 개입됩니다. 그것들은 단지 '물건'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종종 피와 땀과 눈물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대가를 지불하고 샀지만, 값없이 주는 것입니다.

이 소책자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물' 이야기가 담겨있습니다. 그 선물은 당신이 알게 될 가장 위대한 사랑으로 산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을 위해서 준비된 것입니다.

저는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분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당신을 위해 선물을 사셨다는 것도 압니다. 의무감이나, 예의상이나, 이기적인 욕구가 아닌 사랑으로 말입니다. 그 선물을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지만, 당신에게 그 선물을 줄 때는 값없이 주셨습니다. 이 선물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것이 사실인지 믿기 어려운가요? 만약 당신에게 말한 이 선물이 '영원한 생명'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천국에서 사는 영원한 삶,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사는 영원한 삶 말입니다. 이것이 선물이라는 말이 터무니없이 들리나요? 적어도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모든 길이 천국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천국 자체를 완전히 부인합니다. 그들은 사람이 몸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몸이 죽으면 그것으로 우리의 존재가 끝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생각들이 틀리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이 생각했던 길이 당신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천국이 실제로 존재하고, 지옥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여 당신의 이름 앞으로 준비한 선물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포장된 그 선물이 당신에게 값없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혹시 그 선물이 어떻게 준비되었으며, 왜 당신과 저에게 그 선물이 그토록 절실한지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제가 드릴 이 소식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내용이 어렵지 않지만, 매우 깊고 큰 사랑과 은혜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희생으로 준비한 선물, 바로 당신에게 주기 위해 준비한 놀라운 선물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1부**  
**당신의 빛**

# 1장 -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말은 L.A. 지방검사라는 위치에 있는 그의 입에서 나올 법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점심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영적인 문제가 화제로 언급되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만약에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입에서 세 단어가 나왔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는 어떠한 일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만약 당신이 검사라면, 당신은 말은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연구하여, 확실한 결론을 도출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에 대한 확신과 공정한 정의를 집행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당신이 도출한 결론을 법정에서 주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의 경우도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 물어보면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흔한 대답을 합니다. 물론 같은 의미의 많은 대답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당신이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보십시오. 많은 비슷한 대답들을 들을 것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렇다고 생각해요.”

“아마도요”

“저는 아주 착하게 살아서 저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가야 합니다.”

“어쩌면...”

당시 L.A. 지방검사였던 저의 친구에게 물었을 때, 그 역시 자신이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그 역시 확신하지 못했고,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잠시만 점심식사 자리에 저와 함께 있다고 생각하며, 제 친구에게 물었던 질문을 당신에게 물어보아도 될까요?

“당신은 죽은 다음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까?”

## 당신이 모르는 것이 당신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이런 속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당신이 모르는 것은 당신을 해치지 못한다.”

몇몇 상황에서는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사와 관련된 중요한 질문에서 모른다고 할 때는 결코 맞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육신만으로 이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깊은 교감을 나눌 수 있고, 하나님과도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몸이 죽는다고 우리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에선가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것이 우리를 해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진리, 곧 하나님의 존재와 죽음 이후의 삶,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에 대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의 가장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알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아는 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32]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 만약 당신이 알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검사인 제 친구에게 물었던 질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영원한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행한 착한 일들이나 지속적인 배움의 자세, 열린 마음, 진실된 노력이면 충분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천국에 장차 나의 집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5:13]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상태로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당신은 영원에 대해서 그저 알기를 바라기만 합니까 아니면 확실히 알기를 원합니까?

## 2장 - 이르지 못함

혹시 마트의 계산대 앞에서 돈이 모자라 동전을 찾느라 호주머니와 지갑을 뒤질 때의 당황스런 느낌을 아십니까? 저는 압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저는 그 느낌을 몰랐더라면 하고 바르게 됩니다.

사실 저는 어느 부분에서든지 뭔가 모자라는 느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에게는 상당히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한 단어 진단

사람들이 왜 영원에 대해 불확실하게 느끼는지, 왜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을 보내지 않는지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을 한 단어로 묘사한다면, 어떤 단어를 사용하겠습니까?

착한? 친절한? 선의의?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당신이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면 다른 단어로 자신을 묘사할 것입니다. 고군분투? 외로운? 잃어버린?

사실 우리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바로 '죄 많은'입니다.

물론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죄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완벽하지는 않아도,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도 죄 많은 사람이라니요! 저는 착하게 살아왔습니다. 때때로 기부도 하며, 다정한 부모이자 좋은 친구로 살아왔습니다. 힘든 적도 있기는 했지만, 분명 저는 죄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죄 많은'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성경의 표현을 빌린 것입니다. 제가 표현한 '죄 많은'은 당신이 극악무도한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은행을 강도질하고, 누군가를 죽이거나 경찰의 지명수배자가 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또 당신만이 죄 많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 역시 죄 많은 사람입니다.

정직한 사람이라면 모두 자신이 살아오면서 잘못된 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이 부분을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7:20]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 위에 하나도 없느니라.**

**[로마서 3:23]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말은 '부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때때로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죄의 경우에는 그 부족함의 성격이 다릅니다.

죄는 단지 잘못된 판단(계산대에서 돈이 부족한 경우)이나 실수(약속을 잊어버린 경우)가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에 거스르는 우리의 행동이나 생각, 동기를 말합니다. 이 죄에는 사회적으로 범죄라고 일컫는 행동(은행강도)이나 사소하게 보이는 행동(상사에게 잘보이기 위한 거짓말)이 모두 포함됩니다.

우리는 모두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선한 사람도, 가장 악한 사람도 모두가 죄를 지은 것입니다.

나도 당신도 모두 죄를 지었습니다.

## **선택의 결과**

우리는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죄의 본성을 상속받았습니다.

잠깐 저와 함께 수 천 년 전의 에덴동산으로 가보지 않겠습니까? 아마 당신은 이 에덴동산과 그곳에 살았던 아담과 이브에 대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동산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할 정도로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아름답고, 풍요로우며, 훌륭한 곳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는 바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과 완벽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날 서늘한 때에'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당신은 이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렇지 않다면 성경의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에게 완전한 동산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었는데, 오직 한 나무의 열매만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었고,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죄를 짓지 못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그들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인격체가 아닌, 로봇이 되었을 것입니다.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자유롭게 사랑하거나 반역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의 상황에서도 모든 것은 그들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았으며, 자신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지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환경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 모두에게 내려온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12]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는 다음 장에서 '죄로 인한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 모두가 아담의 후손으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 그래서 죄를 짓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까지만 알아둡시다.

만약 당신이 부모님이라면 이 사실을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아이를 앉혀놓고 이렇게 말한 적이 없을 것입니다.

“얘야, 오늘은 거짓말하는 법을 가르쳐 주마. 그것을 잘 배우면 내일은 성질 부리고 때 쓰는 법을 가르쳐줄게. 그리고 다음 주 정도에 도둑질하는 최고의 방법을 가르쳐주마.”

우리는 이런 식으로 우리의 자녀에게 죄 짓는 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배운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이미 자연스럽게 알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 안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 하나님의 잣대

당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여전히 '죄인'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당신은 선의의 친절할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웃과 비교할 때, 특히 장모님이나 시어머니와 비교할 때, 당신은 매우 좋은 사람일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잣대인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대체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장 간단명료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잣대에 대해서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십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생각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 가려면 계명을 모두 지켜야 한다고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체크리스트로 주신 것이 아니라, 거울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우리 자신이 보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십계명이라는 거울을 보기 전까지는 내가 매우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십계명의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보고 "내가 최소한 한 번 이상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내 생각만큼 내가 흠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정직하게 하나님의 잣대인 십계명을 우리 자신에 비추어보면, 우리는 기준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것도 상당히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르지 못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길을 찾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요.

"내가 완벽하지는 않아도, 최소한 저 사람만큼 나쁘지는 않아."

이 말을 하니, 한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한 아이가 엄마에게 자신의 키를 말했습니다. "엄마 제 키가 6피트(feet)예요!"

그러자 엄마가 물었습니다. "키를 어떻게 잴니?"

"제 신발로 잰어요." 아이가 말하자, 엄마가 웃으면서 아이의 신발은 1피트(feet)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제 발이 이 신발에 들어가는걸요."

(역자 주: 피트(feet)는 발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길이단위로 사용됨. 1피트(feet)는 30.48cm로 아이는 자신의 발(feet)과 길이 단위 피트(feet)를 같은 것으로 생각함.)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매우 선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로 왜곡되지 않은 기준인 하나님의 거룩하심만이 우리의 선함을 측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어긴 계명이 오직 하나라 할지라도, 우리는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10]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을 사슬로 생각해 보십시오. 연결고리 하나가 망가진 사슬이 있다면, 당신은 그 사슬에 매달릴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매달리지 못할 것입니다. 연결고리 한 개가 망가져 있다면, 사슬 전체가 망가진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이 완벽하게 선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 왜 자신의 선함에 의지해서 천국에 가려고 하는걸까요? 우리의 선함에 의지하는 것은 망가진 사슬을 의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율법으로 자신을 정당화하려 한다면, 우리는 율법의 모든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 **당신이 이것을 알아야 하는 이유**

지금까지 이 글을 읽고,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에 이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었다면, 제대로 본 것입니다.

하지만 한가지 더 말씀 드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함에 이를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자신의 상태를 알고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해답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복된 소식을 가져다 주는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로 죄의 가격표에 대한 것입니다.

## 3장 - 손해 평가

몇 년 전 저는 아내와 딸을 차에 태우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차가 갑자기 좌회전 차선으로 가지도 않으면서 좌회전을 하는 바람에 접촉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상대 차량의 운전자와 저는 내려서 차를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범퍼만 조금 망가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보험사 담당자는 견해가 좀 달랐습니다. 그는 이 사고를 '책임과실'이라고 언급하며, 매우 심각한 사고로 평가하여 더 높은 보험료로 책정하였습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그 보험사 담당자와 같이 죄의 문제를 잠깐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한 손해가 무엇인지 실제적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사실 많은 선을 행하며 가끔씩 죄를 범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죄로 인한 손해가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최저 비용

누구나 자신이 일한만큼 받기를 원합니다. 정치인들은 근로자가 시간당 받는 '최저 임금'의 수준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수고에 대해서 가장 높은 급여를 지불하는 직장을 찾습니다. 그러나 죄의 비용을 지불할 때 최저비용은 엄청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나..."

죄의 삯은 사망!

정말로요?

죄의 대가가 사망이라구요?

우리는 이미 로마서 5장 12절에서 아담의 죄로 인해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로마서 5:12] 그러므로 한 사람(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당신이 아담과 이브의 선악과 사건을 잘 안다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할 것 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죄의 결과로 사망을 약속하셨습니다(창세기 2:17). 둘째, 아담과 이브는 그들이 선악과를 먹은 순간 쓰러져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망은 무엇일까요?

## 분리

성경에서 사망은 '분리'를 의미합니다. 육체의 죽음을 생각해 보면, 이 의미가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우리 몸이 죽으면 우리는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과부터 분리됩니다. 만약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본 적이 있다면, 사망으로 인한 분리의 고통을 알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단지 육체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영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결국 맞이하게 될 육체적 죽음은 이 세상에 있는 죄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당신과 제가 직면한 영적 죽음은 우리 자신의 죄의 결과입니다.

## 비싼 값

죄의 값은 정말로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분명 좋으신 하나님은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지는 않을거야!”

하지만 죄의 값이 사망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값이 사망이라고 우리에게 말해 주셨으며, 그 사망으로 인해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것을 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의 값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판관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유대인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의 그리스도인 친구가 그녀에게 영원의 문제에 대해서 말을 꺼냈습니다.

대화 중에 그 친구는 죄의 대가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나는 지옥을 믿지 않아!”라고 큰소리 말했습니다.

“왜 믿지 않아?”라며 그리스도인 친구가 물었습니다.

“육백 만 명이 넘는 나의 형제, 자매들이 아돌프 히틀러의 손에 의해 죽음을 당했는데, 억울하게 죽은 그들 모두가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라고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친구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천국의 황금길에서 아돌프 히틀러를 만나면 내 안부도 좀 전해주렴.”

그러자 그녀가 소리 쳤습니다.

“아돌프 히틀러? 히틀러는 천국에 없어. 지옥에 있을거야!”

자, 이 여인조차도 ‘하나님은 죄인을 벌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죄인에 대한 개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히틀러의 잣대가 아닌, 하나님의 잣대로 보았을 때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 4장 - 부족한 지불

브루클린에 사는 한 남자가 가택침입강도죄로 체포되어 미연방교도소에서 수 년간의 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몇 년의 복역 후, 이 남자는 탈옥하여 도망갔습니다. 여러 해 동안 이 탈옥수를 찾기 위해 많은 경찰들이 동원됐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젊은 형사가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탈옥수의 단서를 찾으며 계속 추적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탈옥수를 찾았습니다.

형사는 그를 따라 편의점에 들어갔고, 그의 뒤로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으며 그가 체포되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탈옥수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형사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형사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여러 해 전에 했던 일을 알고 있소. 교도소를 탈옥하여 서부로 도망가 결혼을 했고, 지금의 가족과 살고 있다는 것을...”

자신이 교도소에서 몇 년을 더 복역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그는 형사에게 집에 잠깐 들러서 가족들에게 인사를 하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의 눈가에 어린 슬픔을 보고서 형사도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좋은 남편이었소? 내가 자녀들에게 좋은 아빠였소?”

그러자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그런데 그런 질문을 왜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는 아내에게 자신이 탈옥수라는 사실과, 밝혀지지 않으리라고 믿었던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말해주었습니다. 그는 형사에게 돌아서서 자신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며 자신을 용서해 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형사는 그의 손에 수갑을 채워 데려갔습니다.

우리 모두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선한 행위로 과거의 전과기록을 지우려 하는 탈옥수의 시도가 헛되다는 것도 알 것입니다. 비록 그가 정직하게 변화되었을 수는 있어도, 강도죄에 대한 형벌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역시 그 강도와 같이 부질없는 시도를 합니다. 사실 강도보다도 더 부질없는 시도입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대가(영원한 죽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는 직관적으로 우리에게서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 등의 다른 방식으로 그 차이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 종교

결국 종교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비록 종교제도가 논리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죄의 값을 지불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값이 교회 회원 가입이나, 교리문답, 헌금, 기도 등 종교활동을 통해 지불하고자 하는 어떤 형태의 분납금이 아니라,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종교를 성경적인 믿음의 대체품으로 이용합니다. 그런 사람 중 한 사람이 바로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니고데모는 단순히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라 종교계의 리더요, 양심적인 추종자요, 선한 사람으로 종교의 화신이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어느 날 밤,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밤중에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거듭나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교는 죄로 인한 값을 지불하지 못합니다. 불충분합니다.

## 선행

좋은 이웃이 되고, 지역 공동체에 봉사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가족을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은 시간을 투자할만한 좋은 일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중에 어떤 것도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9절은 영원한 생명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선한 행위로 천국에 가려한다면 우리는 한 겹의 죄를 더 감싸게 될 것입니다. 바로 교만이라는 죄입니다!

실제로 선한 행위들조차 우리의 죄악으로 오염되어 얼룩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사야서 64장 6절에서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법이 아니라 실제 비교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는 다른 사람의 행동과 비교할 때 선하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함과 비교할 때는 부정한 것입니다.

## 돈

어떤 사람은 돈으로 천국에 가려 합니다. 교회나 자선단체에 기부할 때, 하나님이 자신의 헌신을 보고 천국에 들어가게 해줄 것이라고 바라는 것입니다. 전 뉴욕시장이었던 마이클 불룸버그는 자신이 믿는 대의를 위해 5천만달러를 기부하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신다면, 제가 천국에 갔을 때 심사받느라 문앞에서 멈추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곳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천국에 제 자리가 있다는 것은 아주 확실합니다.”

사실 그에게 확실한 것이 있다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돈으로는 결코 천국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은이나 금 같은 썩을 것으로’(베드로전서1:18) 구속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천국을 돈으로 살 수 있다면, 그 비용이 얼마나 들지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몇 년 전에 어떤 사람이 워렌버핏과 점심식사를 하는데 35만달러를 지불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고려해 본다면, 불룸버그씨는 천국에서의 ‘휴가’조차 제대로 사지 못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돈으로도 천국을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으로는 죄를 속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자기 고행

저는 로마 바실리카 성당의 돌계단을 손과 무릎으로 기어 오르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무릎은 살이 벗겨지고 찢어져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자신의 죄값을 치르고자 하는 필리핀 사람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자신에게 고통을 가하지 않는 사람은 연옥에서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 자기고행이나 어떠한 고통을 통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것은 충분히 가치있는 고통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필요한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요, 영원한 하나님과의 분리이지, 고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진정한 마음

아마 이런 말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모든 길은 결국 같은 곳으로 통한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비록 그 방법적인 측면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은 오늘날 유행하는 다원주의 이론을 기초한 것으로 편협하지 않고 포용력이 있는 생각처럼 보입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은 생각은 속이 좁고 시대에 뒤쳐지는 생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다.

**[잠언 14:12]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옳으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눈에 옳게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마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도 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고 명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6]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한 길만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합당한 지불**

값을 지불할 때, 무엇으로 지불하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저의 주택담보대출금을 수 천 개의 쿠키를 만들어서 은행에 지불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내 생각에는 괜찮은 것 같아도 말입니다.) 은행장 집의 앞마당 잔디를 20년 동안 매주 관리해주는 일로 대출금을 지불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의 집을 가난한 자들이나 고아들을 돌보는데 사용했다는 것으로도 대출금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택담보대출금의 합당한 지불방법은 돈으로 지불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종교나 선한 행위, 돈, 자기고행, 진정한 마음, 그 외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 죄값을 지불하는 데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오직 한 가지 합당한 방법만이 있으며, 그것은 바로 사망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진지한지와 상관없으며, 우리의 생각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중요합니다.

## **은혜**

우리의 죄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한(하지만 공정한) 형벌에 대해서 이해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해하게 됩니다. 당신과 저는 죄인입니다.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만약 그것을 부인하고,

스스로의 방식이나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면, 죄 값을 지불하는데 있어서 의미 없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당신의 죄가 무엇인지 이해한다면, 즉 당신의 죄가 자신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한 것임을 이해한다면, 이제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개입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17]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 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스스로 죄에 대해서 온전하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의 죄 값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의사에게 가서 정밀 검사를 받은 후 심각한 암이 있다고 진단을 받았는데도, 자신이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며 암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은 의사가 내리는 처방과 치료법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에게 암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우리가 스스로 해결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즉 죄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죄 값을 스스로 지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간절히 필요한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은혜의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을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8]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방식대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죄인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와 같은, 그리고 당신과 같은 죄인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오직 한가지 참되고 조건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비록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단지 좋은(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따뜻하게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매우 실제적이고 강력하여, 엄청난 희생을 감당하게 해주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좋은 소식이 있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 좋은 소식을 다음 장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페이지를 넘기시면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하시는 그 놀라운 선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 2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심

## 5장 - 대신 지불함

몇 년 전 유명한 설교자가 작은 남부도시에서 운전하다가 과속으로 걸려, 즉시 교통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설교자는 과속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과속으로 벌금을 내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예상대로 판사는 유죄를 선고했고,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판사가 그 설교자를 알아보고 벌금을 취소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판사가 “당신이 법을 어기기는 했지만, 유명한 설교자이니 그냥 가도 됩니다.”라고 말한다면 그는 공정한 판사가 아닐 것 입니다.

그래서 판사는 자신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법을 어겨서 벌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대신 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을 보여주는 아주 작은 그림입니다. 우리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 형벌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재판관이 친히 우리의 죄 값을 지불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 분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 예수님께서 오심

예수님의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사실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단지 그렇게 주장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입니다.

그 사실이 왜 중요한가요?

만약 예수님이 사람이었다면, 아무리 선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죽음을 대신 갚아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 그분은 우리의 죄가 아닌 자신의 죄로 인해 죽음이라는 죄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제가 죄를 지어 사형선고를 받고, 내일 아침에 사형이 집행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당신은 저의 둘도 없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재판관에게 친구인 저를 대신해서 사형을 당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어떤 사법제도권에서는 그것을 허락하기도 합니다. 무죄한 사람이 죄지은 사람을 위해 대신 처벌을 받고 대신 죄인이 풀려나는 것이죠.

하지만 당신 역시 사형선고를 받았다면 당신이 저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역시 죄로 인해 사형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값을 대신 지불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지불하신 대가는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값을 지불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심을 보이셨습니다.

**[디모데전서 3:16]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서도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오셨을 때, 그분은 죄를 모른 채 해 줄 수 없는 의로운 재판관으로서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 죄값을 자신이 친히 담당하신 것입니다.

## 값비싼 지불

예수님은 초자연적으로 처녀에게서 수태되었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사 이 땅의 한 가족에게서 갓난아기로 태어났습니다.

30세가 되셨을 때, 그분은 공적인 사역, 즉 병자를 고치고, 절름발이를 고치고, 나병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들을 살리는 공적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1세기에 살았던 정직하고 편견 없는 지식인 이라면 예수님의 이 기적들(특히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보고, 그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했을 것입니다. 분명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행한 기적은 그분이 하나님임을 입증해 준 것입니다.

요약하며 말씀 드리면, 3년간의 공적인 사역(말씀선포와 가르침, 그리고 기적)후, 예수님은 당시 시기하는 종교지도자들로 인해 십자가 처형이라는 끔찍한 사형선고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기꺼이 감당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입증한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성경 속 네 권의 책(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 누가복음 23장, 요한복음 19장)에서 읽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로마시대의 채찍질 형벌은 매우 극심한 고통을 가져다 주는 형벌로, 채찍질 당한 이후에 살아있다는 자체가 놀라울 정도입니다. 어떤 죄인들은 이 채찍질만으로도 죽었습니다.

그 이후 예수님은 재판정으로 보내졌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로마 군사들에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일컬어지며 조롱을 당하였고, 머리에는 가시관이 씌워졌는데, 이 가시관은 그분의 두개골까지 찔렀습니다.

그 이후 로마 군사들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보리언덕까지 가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며 기진하여 비틀거리자, 로마군사가 옆에 서있던 사람을 시켜서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했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집행할 갈보리 언덕에 도착하자, 그들은 예수님의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박고, 십자가를 들어서 땅에 세웠습니다. 이때 세워진 몸은 손과 발의 못 박힌 곳을 중심으로 아래로 처지게 되며 어깨가 탈골 됩니다. 그리고 가슴이 압박 당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기 때문에 못박힌 발을 의지하여 몸을 세우며 숨을 쉬게 됩니다. 이 고통이 너무 극심하여 종종 이 순간 의식을 잃는 죄인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여섯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희생을 감당하셨습니다.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죄수들에게 로마 군사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죄수들의 다리를 부러뜨려 더 이상 다리를 차서 숨을 쉬지 못하게 함으로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로마군사들이 일정 시간 후에 예수님의 다리를 부러뜨리고자 십자가로 다가갔을 때, 예수님은 이미 숨을 거두신 상태였습니다.(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수 백년 전에 예언되어 기록된 구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예수님의 죽음을 확실히 하기 위해 로마 군사들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 확인하였고, 이 때 찔린 부위에서 물과 피가 흘러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 완전한 지불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직전에 마지막 한마디 말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30]**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 숨을 거두시니라.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떻게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는 여전히 병든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 먼 사람들,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말인가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친 헬라어는 재정 용어로서 “완전히 지불하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지불하였다!”

하나님께서 죄의 삯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죄의 삯은 사망’(로마서 6:23)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로마서 5:8]**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죄의 삯은 사망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죄의 삯을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 증거

예수님께서서는 죽으시고, 묻히신 뒤에 3일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다 이루었다”라고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부활로 입증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누군가 말했듯이 ‘기독교의 정수가 되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모습을 드러내신 내용이 열 부분도 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부활한 이후의 모습을 여러 번 드러내셨으며, 심지어 5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까지 보이셨습니다.

지금 이순간, 이 모든 사실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 충분한 지불

이전 장에서 우리는 불충분한 지불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불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와 노력으로 지불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지불방법(종교, 선행, 돈, 자기 고행, 진정한 마음)은 스스로 자신의 죄값을 지불하려는 시도입니다.

사실 세상 모든 종교의 핵심에는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종교에 따라 다양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특정한 기도를 많이 해야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종교기관에 돈을 내는 것일 수도 있고, 침례의식이나 목상, 또는 친절한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동일한 '행위'철학입니다.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무언가를 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것,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 용서를 획득하는 것...

그러한 시도의 문제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에 충분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서는 다른 대안을 제시하십니다. 사실 그 방법만이 완전하고 충분한 지불방법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값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는 방법입니다.

종교는 '행하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종교는 '더 힘써야 한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다 지불했다'고 말씀합니다.

다 이루었도다!

완전히 지불하였도다!

그 지불이 여러분에게도 해당되길 원합니까? 다음 장에서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 6장 - 용서

뉴욕시 외곽의 공원묘지에 가면, 독특한 묘비가 있습니다. 그 묘비에는 고인의 이름도, 출생일과 사망일도 없습니다. 어떤 지혜나 격언의 비문도 없습니다. 한 단어만 새겨져 있습니다. 바로 '용서 받음'이라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그 한 단어 안에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평안과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운 자는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며' (로마서 3:10)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놀라운 사실은 착한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신의 공로로 천국에 가려 한다면, 실패하고 말 것 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부터 아무리 완벽하게 산다 할지라도, 여전히 값을 지불해야만 하는 이전의 죄들이 당신의 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용서받고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십니다. 믿어지지 않죠? 하지만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완전한 사랑과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엄청난 희생으로 당신에게 이 놀라운 방법을 제안하십니다.

그 사실을 다음 성경말씀이 말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21]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 선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죄의 값은 사망이나'라는 로마서 6장 23절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만 전반부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의 후반부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보시다시피, 구원 즉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획득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받는 대상인 것입니다.

## 포괄적인 제안

성경 전체에서 가장 잘 알려진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16]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강조한 단어를 보셨나요? '누구든지'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말이며, 성경에서 가장 포괄적인 단어로써 바로 당신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 배타적인 제안

하나님의 용서는 포괄적인 동시에 당신에게 주어진 개인적인 제안입니다. 하지만 배타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이 포괄적이고 개인적인 제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이제 누구나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도 믿지만 동시에 다른 종교나 철학, 또는 자신을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저는 예수님을 믿고 부처님도 믿어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도 믿고 착하게 살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도 믿고 침례도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또는 그들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옛 경구를 언급하며 모든 길은 천국으로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이 오늘날 인기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6]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또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12]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보시다시피, 예수님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여러 길 중의 하나가 아니라, 오직 한 길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주시고, 완전한 죄의 용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니다.

용서를 거부하지 마십시오

1829년 조지 월슨과 제임스 포터라는 두 사람이 우체국 절도죄와 그 과정에서 발생한 우체국 운전사의 살인협박 죄로 체포 당했습니다. 포터는 사형을 당했으나 월슨의 사형 집행일은 친구들의 탄원으로 인하여 연기되었습니다.

그러다 1830년 앤드류 잭슨 대통령의 사형수 특사로 월슨이 사면을 받게 되었는데, 이상하게도 월슨은 그 특사를 거부하였습니다. 마침내 이 일을 처리하기 위해 대법원 재판까지 열리게 되었고, 당시 대법원장이었던 존 마셜은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용서도 행위입니다.... 만약 거부한다면 우리가 그 용서를 강제로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용서가 월슨에게 주어졌지만, 월슨은 그 용서를 거부하였습니다.

저는 당신이 동일한 실수를 범하지 않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용서를 베푸셨습니다. 그 용서는 예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여 준비한 것입니다.

거부하지 마십시오. 부디 용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7장 - 믿고, 영접함

몇 년 전 미국 소비자 여론 조사기관의 발표에 의하면, 기프트카드(gift card)를 받은 5명 중에 1명은 그 기프트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버린다고 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기프트카드의 금액만 약 9억7천2백만달러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프트카드를 가진 사람들에게 물으니 다음과 같은 대답이 나왔습니다.

- 시간이 없어서: 50%,
-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해서 : 37%,
- 카드를 잃어버려서 :14%,
- 카드 유효기간 만료로 : 12%

이 기프트카드는 금액과 상관없이 선물 받은 자에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카드에는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충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탓에 그 금액이 전혀 의미없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 대신 죽어주셨지만, 그 사실만으로 내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 사실을 내 삶에 적용해만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안다는 것과 무언가를 믿는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사실 성경은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야고보서 2:19)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완전히 지불해주셨다는 사실을 단지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는 기프트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과 사용하는 것의 차이와 같습니다.

### 믿으라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만약 제가 에펠탑과 같은 세계적인 건축물을 당신에게 선물로 준다고 한다면, 당신은 고맙다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단지 친절하게 대답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일 뿐, 마음 속으로는 제가 정신적으로 심각한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보았습니다.

- 1) 우리 모두는 죄를 지었습니다.

**[로마서 3:23]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 2)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죄의 값은 사망(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지옥에 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23] 죄의 값은 사망이나...**

- 3)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8]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_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 4)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만을 믿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4:12]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로마서 6:23]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지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그 선물을 받을지 거부할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으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될 것이며,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이 결정될 것입니다.

##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라.**

천국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는 선물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행위,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대신 달리신 예수님만을 믿어야 합니다.

다음 세 단어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하다', '돌아서다', '믿다'

당신은 그 선물을 위해서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노력으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행하신 일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성경적 표현으로 “하나님께서로 향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향한 믿음[예수님께서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신뢰함]”이라고 합니다.(사도행전 20:21)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13]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당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백하고, 죄 용서를 구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구원자로 믿겠다고 기도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서 성경은 당신이 항상 기도를 해야 한다거나 종교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예전의 잘못된 생각들을 버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 받고자 하지 않으며,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문구를 읽으면, 바다 한가운데 빠져 더 이상 육지로 돌아 갈 수 없게 된 표류자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소망과 도움이 전혀 없는 표류자 말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저 멀리 수평선에서 배가 보입니다. 당신은 손을 높이 들고 큰소리로 외치며 구조를 요청합니다. 마침내 배가 당신 근처에 다가와서 구명정을 내려 보내줍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이제 구명정이 제 곁에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계속해서 물속에서 수영하고 있을게요.”

절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구명정이 내려오자마자 바로 그 위로 올라탈 것입니다. 바로 당신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인 구명정 위로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가 죄 가운데 헤매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해 달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구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9-10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마음으로부터 믿고 구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0:9-10]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구원해 달라고 구하기만 하면 받게되는 선물입니다. 당신은 그 놀라운 구원이라는 선물을 지금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마음속으로 진실하게 기도



하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저의 죄를 고백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만이 저의 구원자인 것을 믿습니다. 죄의 형벌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세요. 아멘”

만약 당신이 지금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이 기도를 했다면,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받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받은 기쁨만이 아니라, 소유하는 기쁨도 있습니다. 사실 당신이 이 선물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그리고 이 선물을 주신 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알면 알수록, 당신은 이 선물에 대해서 더 기뻐할 것입니다.

## **이제 당신은 압니다**

이 책의 첫 부분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살펴보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던 저의 L.A. 검사친구를 기억하십니까? 좋은 소식이 있는데, 그 친구도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했습니다. 그 역시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주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했습니다.

만약 방금 전에 당신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셨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도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1장에서 보았던 구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13]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얻고 그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 가능합니다. 만약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 행위가 구원받기에 충분한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다만 그러길 바라고 노력하고, 구원에 대한 의구심을 가진 채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안에서는 구원이 확실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지키실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확실합니다!

## 8장 - 은행에 가져감

혹시 부도수표를 은행에 가져가 본 적이 있나요? 누군가 당신에게 준 자기앞수표를 은행에 가지고 가서 현금으로 교환하려 하는데, 그 수표가 거부된 적이 있습니까?

또는 누군가가 당신에게 거짓 약속을 한 적이 있나요? 당신에게 무언가를 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 때가 되어도 지키지 않은 적 말입니다. 때때로 말을 믿을 수 없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반대입니다. 일단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따라서 당신은 그분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인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면, 이 선물이 얼마나 안전한지 알려드리고자 하니, 부디 이 마지막 장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물을 주시고, 영원히 간직되도록 해주셨습니다.

### 확실한 약속

예전에 어떤 글을 읽었는데,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그 누구도 침입할 수 없는 은행의 지하저장고가 있다고 합니다. 그곳은 바로 미연방 금괴 저장소인 포트 녹스[Fort Knox]라고 합니다. 만약 강도가 이 곳에 침입하려면 먼저 단단한 화강암층 원형 벽을 뚫고, 기관총으로 무장된 경호원들과 군인들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22톤 무게의 저장고 문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문의 시건 장치가 너무 복잡하여 그 장치를 푸는데만 10명의 팀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돈을 훔치고 싶다면, 절대 포트 녹스[Fort Knox]로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준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은 이 미연방 금괴 저장소보다 더 안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28-29]**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29)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시매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구원 받기 위해 그분에게 구하는 자는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말 그대로 절대 끝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이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보여주고자, 한 그림을 우리에게 묘사해 주셨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감싸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그 예수님의 손을 붙들어 감싸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 아무리 안전하다는 포트 녹스[Fort Knox]도 하나님의 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잘못 행하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며 걱정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지으면 구원을 상실하게 될까봐 걱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도 그렇게 느끼신다면, 제가 좋은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돈은 잃어버릴 수 있어도, 당신의 구원은 결코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획득한 것이 아니므로, 행위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1:7]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한일서 2:1-2]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2)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

이 말씀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부주의하게 죄를 지어서는 안된다고 훈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육신 가운데 살면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를 짓는다 해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신 것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함과 우리 구원의 안전함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직접적으로, 여러가지 비유로 자주 언급되고 있는 진리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자녀의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구원을 자녀가 태어나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태어났을 때, 부모님의 자녀가 되어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은 물리적으로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그분의 가족에서 지우지 않을 것입니다.

## 정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집을 구입하기로 결정했다면, 아마도 은행에 가서 주택융자금을 알아보고, 어떻게 갚아나갈지를 계획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택매매자들은 당신이 돈을 준비할 것이라는 이야기만 듣고 계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주택매매자(당신의 부모님이 아니라면...)는 당신에게 주택매입을 위한 '보증금'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 보증금은 당신이 지금 그 주택을 구입할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의 집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에 대한 확실한 이행을 위해 친히 '보증금'을 내셨습니다. 그 보증금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신 성령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증금'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순간 그분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고린도후서 1:22)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면,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함께 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십시오.

이 모든 약속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코 거짓말 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과 거짓말 할 수도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디도서 1:2] 영원한 생명의 소망 안에서 사도가 되었는데 이 생명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셨으나**

통장의 잔고는 바닥이 드러나고, 사람의 보증은 지켜지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네가 구원을 위해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노라."고 약속하실 때, 당신은 그 약속을 믿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물은 영원히 안전합니다!